

법헌 스님의
만다라&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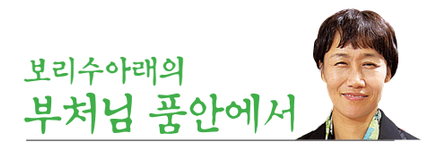
관음원(연화부원)

이 도상은 일반적으로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이라고 한다 존형(尊形)은 황금색을 하고 있으며, 얼굴은 27면(面)과 천수(千手)를 가졌는데, 27면은 지옥에서 무색계까지 25유의 중생윤회 세계를 제도해 고통서 벗어나게 하며, 정상 중앙에는 아미타불이며, 나머지는 모두 보살상이다. 천수에는 중앙의 큰손 42수를 강조하고 있다. 양쪽2수 3수는 합장과 수인을 하고 나머지 각각에는 각종 지물은 일체의 중생들의 서원을 구비하여 과덕을 얻게 한다.

관음보살의 서원은 자비를 세워서 천의 손과 천의 눈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존으로서 자(慈)의 원력으로 중생의 즐거움을 주고, 비(悲)의 원력으로 중생의 고(苦)를 없애 주는데 인간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유정(有情)까지도, 자비를 베푸는 것을 이상으로 한다.

수행 방법으로는 신밀(身密)로서 천수관자재보살의 수인과 각종지물들을 관상하고, 어밀(語蜜)로서 진언(眞言)및 종자(種子)를 암송하고, 의밀(意密)로서 지혜와 삼매(三昧)에 들어 통찰하고 완성을 이룬다.

〈동방불교대학 실담학 교수〉



보리수아래의
부처님 품안에서
⑤ 장애불자들의 도반 이계경 씨

아무 조건없이 장애불자와 함께해

만물이 소생하는 3월이다. 모든 생명들이 생장할 준비를 하듯 연초에 세운 계획들을 본격적으로 실천에 옮기기 시작하는 달이다. 보리수아래가 장애인들과의 월례 법회, 봉축 공연, 템플스테이 참여, 음반 제작 등 여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도울 자원봉사 활동, 재능기부, 후원 등 유형무형의 도움이 필요하다. 올해는 어떤 이들이 보리수아래와 인연을 맺고 장애인들의 동행이 될까 하는 기대와 걱정을 동시에 하게 되는 시기이다.

불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상구보리 하화중생, 바라밀, 사무량심, 사섭법 등의 부처님 법을 바로 알고 행으로써 자비 실천을 하고자 하는 불자들이 많다. 하지만 보리수아래와 같은 작은 단체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게 현실이기도 하다. 전화를 걸어 관심을 보이다가도 제반 설명을 하면 다시 연락이 오질 않거나 마지못해 한번 하는 도움을 주는 일도 있고, 어떤 이는 사진만 찍어가 자신의 기관에서 한 행사처럼 도용하는 예도 있다.

그럼에도 아무런 조건도 따지지 않고 장애 불자들을 도우며 오랫동안 동행이 되어주는 이들도 있기에 감사하면서 장애인 포교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조계종 전문포교사이자 봉은사 신도회 부회장인 이계경 씨가 바로 물심양면으로 장애불자들을 도와 온 좋은 예이다.

이계경 씨와 보리수아래의 인연은 그녀와 내가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서울지역단에서 같은 팀에서 활동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보리수아래의 봉축 공연에서 장애인들의 시낭송 도움으로, 화엄사 등 사찰 순례, 대만중증장애인 불교문화 순례 등에 동행, 종교와 장애에 대한 작은 세미나에서 사회와 발표자로 참여하였는데 자신의 손이 필요하다 싶으면 언제든 도움을 주고 있다. 아름다운 청년 영관 씨, 행복한 미소천사 인제 씨, 이쁜 아가씨 소영 씨, 특별난 시인 훈소 씨, 맘씨 좋은 순애 씨 등 회원들이 돋보일 수 있도록 이름을 불러주어 늘 분위기를 환하게 해주기도 한다.

이계경 씨는 또한 봉은사에서도 여러 직책을 맡아 전법포교에 힘쓰면서, 조계종포교사단 교정교화팀, 무소유실천팀, 홍보팀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전법 신행 봉사를 하며 학문의 필요성을 느껴 대학원에서 명상상담심리학을 공부했다는 소식을 들으며 큰 신심에 감동을 받았다.

인터넷 줌모임으로 시작한 보리수아래 2월모임에서 오랜만에 장애불자들을 만난 이계경 씨는 "법우님들의 밝은 미소를 만나니 봄기운이 감돌듯 훈훈하다, 너무 반갑다"면서 한사람 한사람 안부를 묻기도 했다.

사실 불교계에서 장애불자와 장애인 포교에 관심도는 높지 않다.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편의시설의 설치가 어렵고, 장애인에 대한 기본 정보와 지식이 없어 환경조성이 어려워 엄두를 못 내는 사찰이 많으며, 개인의 경우에도 장애인 포교에 도움을 주는 일을 너무 크고 어렵게 여겨 되레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이계경 씨를 비롯한 개인이나 불교 관련 단체들이 곳곳에서 드러나지 않게 장애 불자의 활동과 포교에 힘이 되고 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에서는 전법회관 3층에서 보리수아래가 월례법회를 하도록 장소제공을 해주었고, 포교사단 서울지역단에서는 포교사인 내가 법회 시 장애 때문에 목탁집전이 어려운 것을 알고 포교사를 파견해 돕는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자원봉사자가 없어 곤란을 겪을 때마다 자원봉사자 파견과 후원을 해주기도 한다. 장애불자들의 소식을 전해주는 불교계 신문과 방송사 등 각 언론사들도 장애인 포교를 하는 데 큰 조력자가 되어주고 있다.

그리고 여러 스님을 비롯한 재가신행단체와 불자들의 십시일반 후원은 장애인 포교와 장애불자들이 자신의 재능을 키워 여러 분야의 포교에 기여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장애 불자들을 돕는 소식이 널리 알려진다면 자연스럽게 장애인 인식개선과 포교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불자들과 함께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장애인법회에 동참을 하거나 자신의 절에 오는 장애인을 반가이 맞아주는 일, 공연에서 격려의 박수를 쳐주고, 손이 필요한 곳에서 자원봉사를 해주는 일 등은 모두 어렵지 않은 일이다. 쉬운 것부터 장애불자에게 마음을 여는 불자들과 스님들이 늘어나는 봄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



'보리수 아래 핀 연꽃들의 노래'에서 장애불자의 시낭송을 돕고 있는 이계경 씨(오른쪽).

금니불화의 탁월한 장엄성!
면발광 LED인등





면발광LED인등
발명특허 제10-2350047호
010-6857-0108
http://www.sungbulwon.co.kr
盛拂園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문화재 수리기능자 8826호 양학모 양희곤 父子 합장
수미단 닫집 영단 인등 경탁 위패 기타 법당장엄일체

신화불사
급 매
충주시 노은면 소재(위치좋음)
대지 300평
법당 20평, 요사채20평,
산신각 8평, 토굴, 기도, 굿당등
사용가능 (상태양호)
양도가 : 9,000만원 (지상권)
1년 40만원 (도지세)
신화불사 합장
☎ 010-6545-2020

탈종공고
• 사찰명 : 극락사
• 주 지 : 상우 (속명 : 김양수)
• 주 소 : 충남 논산시 연산면
황룡재로 78-25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